

그리스도의 심판석

성경말씀: 고후5:9-11

도입

5장 1-7 설명: 장막 집,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8절: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인생의 목표: 9절,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는 것,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 구원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산다.

이 죄들은 다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휴거되어 올라간다. 그리고 땅에서 7년 동안 환난기가 열리고 하늘에서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열린다(계19:7-8).

잔치 전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신을 예비하는 기간이 있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와 보상에 대한 판단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베마

롬14:10-12, 고후5:10

심판석: 고대 고린도, 아테네 등에는 올림픽 게임과 같은 운동 경기가 열렸고 시합이 끝나면 선수들을 모아놓고 판단하는 심판석이 높은 데 위치하고 있었다. 심판의 판단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
중요한 것: 구원을 판단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모두 이미 선수가 되었다. 보상만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1. 마지막으로 죄를 처리한다. 우리의 기억에서 죄를 완전히 지우신다.

롬8: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히10:17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요일5:9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죄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석에서 불꽃같은 눈(계2:14)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순간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는 그 부끄러운 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면허가 아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롬5:20).

그렇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롬6:1-2).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이 죄보다 크다.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죄들을 보게 될 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2. 믿은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롬2:16).

은밀한 것들: 생각과 말과 행위의 동기들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는 때가 있다(고전4:4-5)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히4:12-13).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상세 사항

대상, 고후5:10: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 한다. 비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다.
인생의 모든 것을 내놓고 판단받는 때가 있다.

고전3:7-11,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8절).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모두가 세우되 조심해서 세워야 한다(10절).

고전3:12-15, 모두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짚과 건초로 건물을 세운다.

각 사람의 일이 그 날에 불에 의해 드러난다. 죽은 행위인가? 산 행위인가?

일이 남아 있으며 보상을 받고 불타면 보상의 손실을 입는다.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연옥이라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들은 1000년 왕국 때에 이 정화하는 일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때에 완벽한 판단에 의해 각 사람에게 돌아갈 보상이 공의롭게 정해진다.
이때에는 성공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

청지기의 사명(고전4:1-2)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이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고 모두 위탁받은 것뿐이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청지기들은 반드시 회계 보고해야 할 때가 있다(눅16장).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1. 인간으로서 신실한가? 하나님을 창조자요 구원자로 알고 있는가?
2. 모이기에 힘쓰는가?
3.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가?
4. 형제들을 돌아보는가?
5. 전도와 선교 구제, 헌금 등에 신실한가?
6. 말과 행위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가?
7.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신실한가?
8. 재림의 소망을 신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달란트 비유: 마25:21,23, 오 달란트, 이 달란트, 일 달란트, 신실함이 중요하다.

보상의 종류

- (1) 생명의 관: 이것은 순교자의 관이며 성경에 두 번 언급되어 있다(약1:12; 계2:10)
- (2) 환희의 관: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받을 관이다. 성도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그분께서 오실 때에 바로 그들의 기쁨의 관이 될 것이다(살전2:19-20; 빌4:1)
- (3) 의의 관: 이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을 관으로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그분께서 친히 주실 것이다(딤후4:8)
- (4) 썩지 않을 관: 이것은 승리자의 관이며 자기 몸을 복종시킨 자들 즉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것이다(고전9:25-27).
- (5) 영광의 관: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장로들 즉 목사들에게 주실 관이다(벧전5:2-4). 고전2:9, 우리 차원에서는 상상해 볼 수 없는 일들이다.★★★

하늘의 보상을 바라며 살자

아브라함: 더 좋은 본향을 바랐다(히11:14-16).

모세: 보상을 바랐다(히11:24-26).

다른 성도들: 더 좋은 부활을 바랐다(히11:35).

땅의 보상은 잠시 있다 사라진다. 하늘의 것들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받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

주의 두려움을 기억해야 한다(5:11)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이들은 두렵게 떨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히12:29).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

결론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흰 왕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구원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행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며 사는가?

우리의 죄를 날날이 바라보실 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모두 불 탈 때 영원한 보상을 잃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자.